

# 보관용

# 나눔터

1998.9. 계간·나눔터·제27호

• 퍼낸날 - 일천구백구십팔년 구월 일일 • 퍼낸곳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 퍼낸이 - 최영애 • 만든이 - 김이윤상 • 편집 - 태성커뮤니케이션 TEL 285-6846~8 •



이런 일을 했습니다 2  
 이렇게 생각한다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과 그 이후 (정춘숙) 3  
 여기는 상담실 - 성폭력 상담에 나타는 스토킹 (조중신) 4  
 기획 - 청소년 성폭력 예방비디오를 출시하며 (김이윤상) 7  
 성폭력문제연구소 - <성교육 훈련 워크샵>을 끝내고 (윤이경미) 8  
 성문화 읽기 - 여성·남성 누드 채현에서의 차이 (서정애) 10  
 삶이야기 - 더운 여름날의 우리들의 연수(문선영) 12  
 해외소식 - 미국사회 성폭력 대책활동의 이모저모 (최영애) 13  
 나눔터 애깃글 - 2250년의 여교편담 (장윤경) 14  
 나눔터 게시판 15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우편번호 137-600  
 일반상담 02-529-4271~2 위기상담 02-573-1888 열림터 02-529-4271~2  
 사무전화 02-576-7128, 576-5513~4 팩스 02-576-7127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02-576-5450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제316차 정신대 수요시위**

92년 1월부터 시작한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울들어 벌써 320여회를 넘어 서고 있다. 지난 6월 본 상담소에서 주최한 316차 수요시위에는 경실련, 나눔의집 등 국내단체 뿐만 아니라 독일 팔츠주 교회여성그룹, 미국 버클리대 한국학위원회 등도 함께 참가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세계적인 반향과 지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 버클리대 학생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대한 일본정부의 기만적 태도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미온적인 대응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였다. 할머니들이 대사관 차도옆 시멘트 바닥에 앉아 똑 같은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될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래본다.



**제9기 지킴이 실습**

제9기 지킴이 교육을 마친 46명(여:44/남:2)의 교육생들이 지난 6월 한달동안 상담을 위한 실습을 거치고 7월부터 야간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실습내용은 전화상담참관, pc상담 작성 연습, 롤플레이, 법적 서식 숙독, 상담일지 숙독, 상담과 여성학 관련 토론 등으로 이루어졌다. 실습기간동안 애써주신 야간간사님들과 진지한 자세로 열심히 실습에 임해주신 9기 지킴이들, 화이팅!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홍보 캠페인**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고 7월 1일자로 시행됨을 알리는 홍보캠페인이 본 상담소 주최로 7월 6일 양재역에서 진행되었다. 이 캠페인에서는 가정폭력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과 이 법의 주요골자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구호, 노래패 노래도적의 공연과 선전물을 배포하는 순서의 캠페인을 가졌다. 이 행사는 제3회 여성주간(7/1~7/7)에 실시되는 여성특별위원회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폭력없는 가정,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전국 16개 여성단체들이 참여하여, 법 제정됨과 주요골자를 홍보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1주년 기념 성교육 훈련 워크샵**

본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1주년을 기념하여 7월 27일-28일 양일간 전국성폭력상담소 상담원 및 학교 교사(31명)를 대상으로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성교육,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성교육, 성적 주체성을 길러낼 수 있는 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성교육 훈련 워크샵이 실시되었다. 3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어 주제별(성입문, 성지식, 성문화읽기, 성폭력예방교육 등)로 적극적인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이번 워크샵은 다양한 교재 발굴과 교수방법, 강의안을 개발하는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성교육 교사훈련 프로그램으로 심화될 예정이다.



**제29기 사법연수원생 실습**

7/14-7/23, 8/4-8/1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제29기 사법연수생들의 현장실습이 본 상담소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실습은 사법연수과정 중 사회봉사연수 프로그램(총 10일) 이수과정으로 각 지역의 민원실, 시민단체 등에 지원하여 법률상담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상담소는 각 3명씩 총 6명을 지원받아 성폭력 실태와 대책, 토요법률 변호사와의 만남 및 토요 법률상담 참관, 1일 상담 법적조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상담소는 연수원생들에게 성폭력사건 판례조사와 학내지원팀의 학칙제정 범조문화 작업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사법체계의 구조·법원이용과 연계의 방법·생활법률(여성관련법률)에 관한 강의도 들었다. 유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과 그 이후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서울성폭력상담센터 소장)



**가**정폭력방지법(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10명중 1명 꼴로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우리나라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과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는 아동이나 노인에게는 가뭇에 단비와 같은 소식일 것이다.

94년 세계가정의해를 맞아 여성·아동 문제를 상담하고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던 단체들이 모여 '가정폭력추방주간' 행사를 치른 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연대'를 결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연대'는 95년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조사, 가정폭력방지법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방향에 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96년 한국여성단체연합내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가 결성되어 가정폭력관련 소재자를 발간하는 등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하였다. 96년 8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각 지역 운동본부와 함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법안 마련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1996년 10월 30일 8만5천여명의 서명으로 '가정폭력방지법안'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이러한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의 활동에 자극받은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3당 모두 96년 하반기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였다.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96년말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안기부법과 노동법 파동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97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가정폭력으로 희생된 여성들을 위한 '매맞아 죽은 여자들을 위한 위령제'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대회 등을 통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97년 말 정기국회에 맞춰 사회저명 인사들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였다. 결국 97년 말 '가정폭력방지법'은 국회 법사위의 조정을 거쳐 97년 11월 17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 국회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은 그동안 개인의 일, 사적인 일로 여겨지던 가정폭력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가정폭력이 더 이상 '은폐된 범죄'로 남아있지 않도록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이 더 이상의 남의 가정사가 아닌 공권력이 행사되는 범죄 행위임을 명시한 것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전환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전환은 가정폭력 사건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조기

개입은 가정폭력 사건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과 처벌을 가능케 하여 가정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상담·치료명령 등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가정폭력방지법이 발효된 7월 1일부터 서울여성의전화에서는 '가정폭력사건 처리불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러가지 불만 사례 중 경찰에 관한 것이 가장 많은데, 어느 경찰서에서는 무조건 구속을 하고 어느 경찰서에서는 신고한지 20분이 지나도록 출동조차 하지 않고서 "우리는 아무런 지시도 받은 것이 없다. 바쁜데 왜 집안일로 부르냐"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가정폭력방지법이 발효되긴 하였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아직 변화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위 사례와 같이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들에게 전혀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가정폭력방지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가정폭력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과 사법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은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은 사회의 최소 단위이다. 가정의 건강성은 바로 사회의 건강성으로 이어진다. 가정폭력방지법 발효 이후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과거의 가족이 여성이나 아동의 희생 위에서 표면적인 평화의 모습을 유지했다면, 이제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지켜지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찾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가정폭력방지법은 바로 이런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

# 성폭력상담에 나타난 스토킹(Stalking)

조중신 (본 상담소 상담1부장)

**얼** 마전 본 상담소에 어떤 익명의 스토커(Stalker,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항의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인 즉, 자신은 상대 여성을 사랑해서 편지보내고 선물한 죄밖에 없는데, 여성단체에서 자신을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이다.

스토킹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전형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세가 나타나며 불안, 공포, 악몽, 공황발작, 외출공포, 지나친 경계심, 대인공포, 전화공포, 사회생활 기피 등 심각한 피해 후유증을 보인다. 이렇게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위 사례의 스토커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경우는 비단 이 한사람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피해자유발에 대한 의심, 이들에 대한 비난과 몰이해(‘널 좋아해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 ‘인기많아서 좋겠다’ 등)는 피해를 드러내기 힘들게 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 해도 수사관계자들은 사적 사건으로 치부하고 개인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며 가볍게 처리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크다. 현실적으로 고소를 결심하고 신고 하여도 혼방 정도로 가볍게 처리되거나 협박, 소란, 가택침입, 기물파손, 폭행 등에 대한 미약한 처벌로 그치고 만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이란 무엇이며, 어떤 유형과 피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 1. 스토킹

### 스토킹(Stalking)이란

스토킹이란 상대가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니는 행위이다.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상대도 나를 좋아할 것이다 혹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환상을 갖고 접근해서, 싫은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 폭행을 하는 행위 등 온갖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방적인 접근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는다. 스토

킹은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싫다는데도 계속 쫓아와서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입힌다면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미행, 편지, 전화, 선물공세, 사이버스토킹 등 간접적인 방법에서 집이나 직장 방문, 대기, 협박, 감시, 밀착 미행, 폭행, 강간, 살인까지 나타나고 있다. 스토킹은 아직 범죄행위로 규정하기는 애매하지만 지속되다가 끔찍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어, 피해자의 예방과 안전대책·상담·치료가 필요하며 가해자에 대한 연구와 처벌·치료 대책이 촉구되고 있다. (인용 : 98. 1 강북삼성병원 자료집 스토킹과 현대사회)

### 스토킹의 원인

학자들은 도시의 익명성, 통신수단의 발달, 대인 정보의 유출, 타인에 대한 무관심, 인간성의 황폐, 인격장애자의 증가 등 복잡한 요인들로 인하여 여러 유형의 스토커가 양산되고 있다고 본다. 여기에는 정복욕과 적극적인 쟁취가 남성다움으로 미화되는 이 사회의 통념이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스토킹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처벌 규정이 애매하고 관계자들이 개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방지, 재생되고 있다.

### 스토킹의 실태

90년대 들어 미국, 일본에서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하여 스토킹방지법 제정 등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에서 스토킹을 계획적으로, 고의로, 반복해서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며 싫은 짓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한 이후 거의 모든 주에서 법으로 제정하고 있다. 미국의 보고에 따르면 연간 170만명이 피해자가 있고, 그 중 80%는 여성피해자이고, 예전에는 유명인이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일반인에게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본 상담소의 성폭력사례에서 스토킹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뚜렷하지 않고 애매하여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던 차에 방송, 잡지, 정신과의사, 범죄학자, 가해자연구자, 작가 등이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며 스토킹실태에 대한 문의를 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상담에 나타나는 스토킹을 취합하고 분석하여 경찰수사관계자들과 법조계에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본 상담소의 <토요법률상담>에서는 스토킹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담지원하고 있으며 토요법률상담 소속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스토킹을 대 여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처벌조항을 명확히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 2. 성폭력피해상담에 나타난 스토킹

본 상담소 성폭력상담에 나타나는 스토킹은 전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당하는 피해와, 사귀던 사람· 과거의 내연관계나 동거남· 직장동료나 상사· 동네사람 등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서 당하는 피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상담을 의뢰해오는 내담자 중에는 자신의 상황을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대책을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성이 대부분이다.

다음은 본 상담소에 의뢰된 사례들을 유형화시킨 것이다.

- 한 학교교사가 반복되는 청소년의 음란전화에 시달리다가 발신자 추적을 했더니, 근무하는 학교 학생의 소행으로 밝혀짐.
- 여대생에게 퇴짜를 당하고 괴로워하는 친구를 위로한다고 그 여대생의 뽀뽀에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 남긴 남학생이 추적되어, 학내 여학생회에서 형사처벌대신 교육수강 명령을 내림.
- 초등학교때 짝을 대학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어려서부터 좋아했다며 싫다는데도 '얼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며 막무가내로 집요하게 쫓아다니다가 차에 태워 끌고가는는 청산가리가 든 주사기를 가지고 같이 죽자고 위협함.
- 기수련을 한다는 사람이 접근하여 전생의 인연으로 같이 살아야 한다며 집근처에 매일 찾아와 서있음. 가족들이 나서서 따졌지만 전생에도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다며 포기하지 않음. 주민

등록번호를 알아내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놓겠다고 함.

- 동거하다가 헤어진 남자가 직장과 집을 계속 쫓아다니고 전화하면서 가만 안놔두겠다는 식의 위협을 하여, 밤에 잠을 못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는데도 폭행 등의 가해를 한 것이 아니라고 고소도 안 받아줌.
- 1년정도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려 하는데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힘. 아침저녁으로 집앞이나 회사통근버스 타는데서 기다리고, 뽀뽀에 오늘 만나오면 안좋다는 식의 협박메세지를 남겨놓곤 함. 진짜 헤어져주겠다고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자고 하여 나갔다가 여관으로 끌려가 강간 당함.
- 보험회사에 다니던 기혼여성이 고객과 만났는데 고객이 술에 약을 타 강간한 후 하루에 20-30통씩 전화하며 남편이 받으면 끊고, 아이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4년간 1억 정도를 뜯어감. 돈도 없고 건디다못해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도리어 화간을 주장함.
- 직장동료에게 강간을 당해 직장을 옮겼는데, 새 직장으로 계속 5분마다 전화하여 '사랑한다', '같이 자고싶다', '사랑한다고 큰 소리로 말하면 끊겠다', '자꾸 피하면 그냥 안두겠다'고 함.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제야 친정, 시댁, 아들친구 집에 까지 전화걸어 내연의 관계라고 말함.
- 소개로 두어달 만난 사이인데 회사로 자꾸 전화하여 안만나주면 인사과장에게 자기를 성희롱했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함.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업무가 마비될 지경으로 전화를 하여 제발 그러지말라고 사정해도 소용이 없음. 더 이상 전화를 안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함.

## 3. 예방 및 대처방법

피해를 당해보기 전에는 스토킹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일단 의심하고 조심하는 것이 좋다.

-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호의나 친절을 베풀거나, 과도하게 기다리거나 선물 공세를 하는 사람
- 비굴할 정도의 연극적인 제스처어로 사랑을 표현하기 좋아하는 사람

# K I N G

# STALKING

- ⊙ 대인관계가 불안정하며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고립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 ⊙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집요한 성격의 사람
- ⊙ 어린아이같이 유치하거나 극단적인 흑백논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 ⊙ 자기중심적인 사람
- ⊙ 자신감이 없고, 거부나 분리애에 대한 불안이 강하여 의심이 많은 사람
- ⊙ 거절에 민감하게 자존심의 손상을 받는 사람
- ⊙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없어 상대의 불쾌나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방적인 사람
- ⊙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기 보다는 상대를 기호품처럼 소유하려고 포획물처럼 정복하려는 사람
- ⊙ 자기 행동이나 감정을 자제할 능력이 없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사람
- ⊙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 ⊙ 여성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사람

스토킹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예방에는 한계가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절대 책임이 없다. 일방적으로 과도한 관심을 보이거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데이트 신청을 하면서 쫓아다니며 구애하

는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 그러나 일단 이상한 느낌이 들어 스토킹이 의심되면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만두라는 의사표현을 해야한다. 좋다고 하는데 야박하게 구는 것 같고, 아직 상대의 정체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약간의 가능성을 남겨놓는 경우도 있다. 이런 애매한 태도는 스토킹커들에게 빌미를 주게 되므로 처음부터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이상 막연한 불안과 부당한 공포로 피해받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현실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다.

- ⊙ 타이르거나 설득하려들지 말고 상대방에게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대화는 간단히 끝낸다.
- ⊙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동반하거나 보호를 요청한다.
- ⊙ 피해를 계속 수집하여 증거로 남기고 자세히 기록해 둔다.
- ⊙ 상담소나 정신과, 경찰에 도움을 청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찾아본다.
- ⊙ 전화번호 변경, 이사 등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도 필요하다.
- ⊙ 스토킹커의 가족에게 알려 가해자가 교정·치료를 받도록 유도한다.
- ⊙ 피해를 드러내고 여론화하여 대 여성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처벌법규를 제정해나간다. ☀

## 법률상담

### 합의와 공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중에는 피해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거나 법적과정을 모두 견뎌내는 것을 힘들어 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또는 그러한 절차중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에는 민사합의(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와 형사합의(형사처벌에 관한 부분)가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더이상의 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시 손해액을 정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래에 발생할 후유증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형사고소 진행 중 합의는 1심재판 판결이전까지 할 수 있는데 친고죄의 경우 합의는 고소취하의 의미로 사건이 종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특수강간, 근친강간,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비친고죄의 경우는 합의와 상관없이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합의금을 어느정도의 금액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나 가해자의 재산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 중에는 합의금을 받는 것에 대해 '더러운 돈, 떳떳하지 않은 것' 이라고 생각하여 꺼려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합의금은 피해자가 원치 않았고 피해자의 의지가 무시되었던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경제적·심리적 상처를 다독이는데 필요한 것이므로, 부정할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 외에 재판진행 중에 가해자가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 형사합의금을 공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탁금을 찾는 것인가 여부는 피해자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는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해가되는 것은 없고 다만 가해자가 감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성폭력에 관한 법률지침서〉(한국성폭력상담소, 1997) 참고

# 청소년성폭력예방비디오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를 출시하며

김이운상 (본 상담소 홍보출판부장)

지난 7년동안 성폭력상담 및 예방교육을 실시해온 본 상담소에서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성폭력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성인식이 형성되고 주체적인 판단능력을 키워가는 청소년기 때 올바른 성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난해부터 본 상담소 부설 연구소에서 청소년 성교육 캠프,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창출을 위한 서울시민대토론회, 성교육 훈련 워크숍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온 것도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그동안 축적된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작업들의 결과물을 토대로 이번에는 청소년 성폭력 예방비디오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를 출시하게 되었다.



는 경우가 많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르게 사회화되고 이러한 엇갈린 사회화 과정이 의사소통 단절과 오해의 상태를 낳고, 결국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파괴적 상황은, 비판적인 판단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부재한 채 일탈적 성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성교육은 성을 은밀하고 감추어야 할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들에게 성에 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통해 보고 배운것으로 해소된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식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본 상담소 통계에 의하면 19세 이하의 성폭력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50% 이상이며, 14세부터 19세 사이의 청소년 피해자는 23% 정도이다. 더우기 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가해자가 같은 청소년(이성친구, 동료, 선후배 등)인 경우가 많아 여학생, 남학생 할 것 없이 청소년들을 위한 올바른 성폭력 예방 교육이 너무나도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올 2월부터 수많은 기획회의를 거쳐 주제를 잡고, 대본을 쓰고 수정하기를 수차례, 촬영, 편집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더운 여름에 드디어 출시하게 되는 이 비디오는, 성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일탈적인 성문화에 대책없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길잡이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청소년성폭력예방비디오」는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트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었다. 본 상담소에 의뢰된 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통계에 의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비슷한 나이이면서 친구이거나 애인의 관계에 있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는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문화에 대한 비판능력을 갖춘 주체적인 청소년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비디오를 통해 성폭력이 무엇인지, 자신은 성폭력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위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꼼꼼히 생각해보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한지 청소년들이 스스로 토론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토론을 이끌 수 있는 팜플렛도 함께 제작하였다.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는 각 학교 및 청소년 관련단체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 및 학부모들에게도 훌륭한 지침서 역할을 하리라고 믿는다. ☺

- 대상 : 중학교 여·남학생 및 교사, 학부모 등 ● 시간 : 23분
- 제작 : 에센스 프로덕션 ● 후원 :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주)에스원

**연** 구소 개소 1주년을 맞이하여 성교육을 주제로 워크숍을 실시한 것은, 그동안 본 상담소와 본 연구소가 성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성교육을 주요한 실천전략으로 삼아 지속적인 사업을 벌여오면서 쌓아온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걸음 더 내딛기 위함이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무엇이 건 강한 성적 선택인지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 일 때는 대견할 정도라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가 미리 정해진 규범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고민과 갈등을 기꺼이 들어주는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선택을 믿어줄 수 있는 신뢰가 바탕에 깔려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직교사들의 평가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학생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성교육을 지향하는 태도에 확신을 불러 일으켰다.

##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1주년 「성교육 훈련 워크숍」을 끝내고

윤이경미 (본 연구소 책임연구원)

연구소는 작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중학생 대상의 성교육 캠프를 실시하였고, 수십차례에 걸친 특강 형식의 성교육 강의는 물론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속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연구소는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성교육,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성교육, 성적 주체성을 길러낼 수 있는 성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재 발굴과 교수방법·강의안을 개발하는 작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성교육을 실시할 성폭력상담소 상담원과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한국여성사회교육원 김희은 부원장님의 단계별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강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이후로 대상을 분류하고 각 대상에 따라 어떤 목표를 둘 것인지, 어느 수준과 내용을 담을 것인지 등을 체계화하는 시간이었다. 성교육이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검은 커튼을 친 상태에서 생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 국한되던 현실을 깨고, 이제는 학년별로 체계화된 프로그램에 따라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구체화한 것이다.

7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본 상담소 교육실에서 실시된 이번 워크숍은 전국 성폭력 상담소 상담원 28명과 현직 교사 3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 프로그램**부터 본격적인 워크숍 활동으로 들어갔다. 이 시간은 성교육자로서의 성에 대한 태도와 문제의식을 점검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상담소에서 총무로 활동하다가 현재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면서 여성학 강사로 활동하는 변혜정 선생님은 성을 여성학적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섹스와 젠더, 섹슈얼리티의 관련성과 역학을 설명하였다. 즉, 성을 단순히 보아서는 안된다는 당위를 설명하는 근거로서 섹슈얼리티의 구도를 제시한 것이다. 그런 다음 모둠별로 작업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성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애칭을 짓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지은 애칭 몇 가지를 보면 '허무', '오르기즘', '강아지' 등 기발하면서도 솔직한 경험이 담겨져 나왔다. 이러한 애칭짓기는 자기를 성적 존재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자기 삶이 성적 사건으로 인하여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

**첫째날**은 본 연구소 이원숙 소장님의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후,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을 독창적으로 실시하는 강남여중 백영애 선생님과 풍문여고 김혜련 선생님이 요즘 청소년들의 성문화와 성인식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내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백영애 선생님은 성이 성기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된 것임을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하여 성의 계보를 OHP에 담아 보여주었다. 또한 학생들이 엮는 성문화 관련 역할극, 토론, 자료조사 등을 비디오에 담아 보여주었다. 김혜련 선생님 역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다. 또한 성교육에서 마음을 열고 공감대를 만드는 전초작업으로 응용할 수 있겠다는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자기확인 과정에서 자신이 보수적인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혼란스러운 성규범에서 헤매고 있는지, 래디컬한 사고와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던 것이다.

속제로 애청짓기를 하면서 느낀 점들을 글로 적어오게 하고 첫째날을 마감하였다. 이튿날 10시에 시작한 네 번째 프로그램은 성지식에 관한 것이었다. 본 연구소에서 주관한 두 차례의 캠프와 여고 성교육 워크로서 참여하였으며 현재 YMCA 성정보센터에서 일하는 박현이 선생님이 진행한 이 시간은, 학생들에게 자연스런 성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자로서 남녀 생식기에 대한 기본학습이 얼마나 되어있는지, 생식기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참가자 대부분이 여성이다 보니 여성 생식기에 대한 지식은 비교적 풍부하였으나 남성 생식기에 대한 정보가 모자람이 드러났다. 당연히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 부분이었지만 새삼스럽게 성 관련 기본 지식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소가 실시한 캠프나 성교육 등에서 받았던 학생들의 질문과 참가자들이 받았던 대답하기 난감했던 질문들을 하나씩 적어서 박스에 넣었다. 참가자 한사람씩 나와서 박스 안의 질문지를 그 자리에서 펼쳐 읽고 학생들에게 대답을 하듯 그 자리에서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게 하였다. 순발력은 물론, 평소 성교육자로서 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한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성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었다. 가령 '부모가 열나게 싸우고 나서 바로 그날 같이 잠자는 것을 보았는데 너무 혐오스러웠다', '이성친구와 동거를 하고 싶은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 '간장을 마시면 임신되지 않는가?', '딸딸이를 많이 하면 성기가 휘는가?',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은 여자로, 나쁜 여자로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이 선택되었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듣고 참가자들은 피드백을 활발하게

주고받았다. 가령 성은 책임감을 동반한 행위로서 선택되어야 하며 의사소통의 한 동료이자 쾌락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가정폭력과 성폭력 또는 임신과 낙태 같은 여러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반 상황들을 함께 설명해야 적절할 것이라는 점들이 지적되었다.

다섯번째 프로그램은 성문화 읽기였다. 성

**전체 진행자로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은, 성교육이란 무엇보다 자기로부터의 변혁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만큼 변혁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체성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이었다.**

의 상품화와 이중적 성규범이 깔린 성문화는 이제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흐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에 대한 성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참가자 모두 실감하고 있었기에 많은 참가자들이 특별한 관심을 보인 이 시간은 먼저 두 참가자의 시범강좌부터 실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피드백은 아쉽게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역시 두 캠프와 여고 성교육의 워크로 참여하였으며, 또한 성폭력 가해자 관련 논문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를 졸업한 권수현 선생님이 진행을 맡은 이 시간은 학생들에게 어떤 성문화를 어떻게 읽게 할 것인가를 화두로 삼아 슬라이드부터 보았다. 순정만화와 성인만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 광고와 영화 포스터, 누드 모델 이승희의 이중적 모습 등을 슬라이드로 보면서 참가자들은 이미 편재된 상품화된 성을 청소년들로 하여금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였다. 또한 여고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드러났던 여자 고등학생의 성인식과 성문화를 설명하여 이러한 방식의 성문화 읽기가 학생들에게 어떤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왔는지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번째 프로그램은 성폭력 예방교육이었다. 본 상담소 최영애 소장님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이 시간은 전국 성폭력 상담소에 의뢰되는 주제 가운데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이므로 이 강의에서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과 그에 걸맞는 교수방법을 찾고 이러한 내용을 진행하는 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인식을 점검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초등학교 고학년생, 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시범강좌 가운데 특히 관심이 쏠린 것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예방 강좌였다. 대단위 성교육시에는 다양한 방법(가령 OX 퀴즈를 읽거나 서는 방

식으로 진행, 슬라이드나 OHP 사용 등)을 응용해야 할 것이며 쪽지질문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무엇보다 성폭력 예방교육자는 순결에 대한 인식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교육자의 순결의식은 물론 이를 어떻게 설명해내는가에 대한 열띤 논의는 정해진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연장되었다.

이렇게도 여섯 개의 개별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묶으면서 성교육자로서의 인식과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이 모자랐다. 이틀간에 걸친 워킹숍은 대다수 참가자가 만족하면서도 아쉬워하는 가운데 끝났다. 그러나 우리의 성교육 탐색은 그 끝이 있을 수 없다.

연구소 개소주년을 기념하여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내실있게 진행되면서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를 기습 가득히 안겨준 시간이었다. 연구소가 개소된 것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현실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이론적인 모색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 보다 진척된 성교육 교수방법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또한 다양한 통로로 이를 확산하는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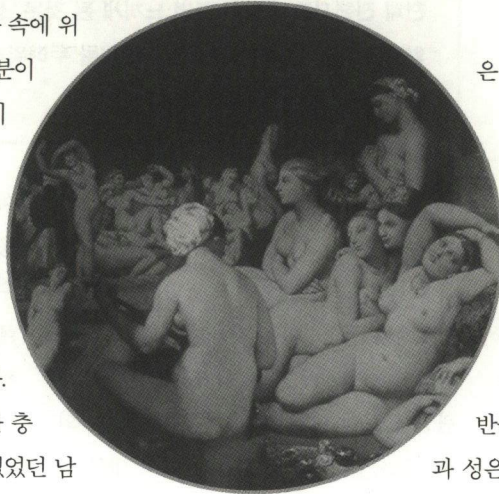
전체 진행자로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은, 성교육이란 무엇보다 자기로부터의 변혁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만큼 변혁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체성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이었다. ☺

사진, 회화 등의 다양한 시각 매체에서 여성들이 누드형식으로 재현되어왔기 때문에 여성누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이러한 익숙함은 “나체란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누드란 예술의 한가지 형태”라는 케네스 클락의 말처럼 누드가 ‘예술’의 형태로서 인식되었고 그에 맞물려 예술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된다. 사실 재현방식으로 누드는 서구회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서양미술의 나체화에서 여성이 오브제로 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세기로, 이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은 여성을 정숙한 여성/매춘여성이라는 범주 속에 위치시켰다. 그 이전에는 남성누드가 대부분이었고 이들은 완벽한 인간상, 영웅적인 이미지로 표상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산업화, 도시화의 부산물인 매춘여성과 술집여성을 모델로 한 여성누드가 등장하면서 누드에 부과된 의미들이 달라지게 되었다. 이는 당시 여성화에 대한 사회적인 제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를테면 여성모델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었던 남성회화의 사회적 지위와는 대조적으로 여성회화가 남성누드를 그리는 것은 절대적인 사회적 금기사항이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중간계급 여성들은 정숙한 여성으로의 처신만이 강조되었을 뿐 누드작업을 위한 해부학 강의를 듣거나 남성누드를 그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따라서 19세기 거의 모든 에로틱한 이미지들은

## 여성·남성 누드 재현에서의 차이

서정애 (여성주의 미술 동아리, 강남대학교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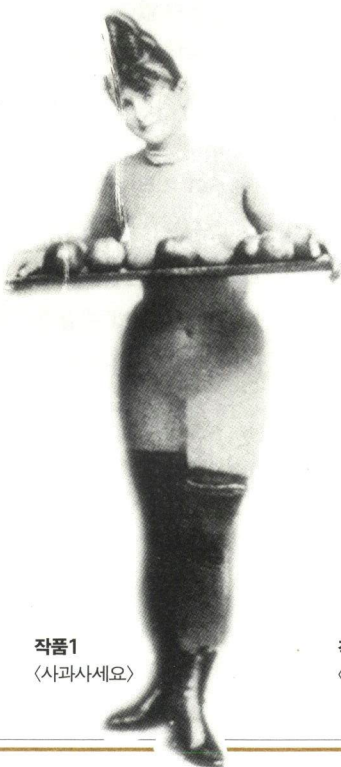
작품2 <터키탕>

은 남성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누드의 의미나 성격이 여성이 오브제로 등장하면서 바뀌게 되었고 따라서 누드를 감상하는 관람자의 시선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세기 포르노 사진 <사과 사세요>라는 작품에 잘 나타난다(작품1). 이 그림에서 여성은 발가벗은 채로 사과가 놓여있는 쟁반을 유방 밑에 받쳐들고 서있다. 당시 과일과 성은 아주 일반화된 은유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은유가 ‘먹는 것’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 그림은 여성의 몸이 남성지배사회에서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서 재현되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성적대상으로서의 여성 이미지는 앵그르의 <터키탕>에 등장하는 익명화된 여성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진 다(작품2). 목욕하는 여성들의 시선은 위나 옆을 응시하고 있을뿐 정면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몽환적 느낌을 주고 있다. 여기서 여자들은 감상자들이 “즐거기 편안한 살덩어리”로 전사되고 있는 것이다.

페미니즘 미술은 이러한 육체, 상품, 성적 대상으로 재현된 여성이미지가 남성지배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작가들은 재현물 속에 숨겨진 이데올로기를 밝혀내고 여성의 관점에 입각한 미술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였다. 대표적으로 미술사학자 린다 노클린은 페러디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기존작품에 내재한 젠더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녀는 남성의 성기를 바나나에 은유한 <바나나 사세요>라는 작품을 만들었다(작품1-1). 이것은 앞의 작품<사과 사세요>를 패러디한 것으로 여자 대신 남자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바나나가 놓여 있는 쟁반을 자신의 성기 밑에 들고 서있는 그림이다. 이 그림 속의 남자는 성적 대상으로 읽히기 보다는 웬지 불쌍하고 처량한 느낌을 준다.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기만 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과



작품1  
<사과사세요>



작품1-1  
<바나나 사세요>

일의 은유가 남녀에게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여성의 성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과일에 대한 시가 유행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남성의 음경을 상징하는 '바나나'에 대한 시는 당시에 등장하지 않았다. 이것은 몸의 일부와 과일의 관계가 여자들에게만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은유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른 작품으로는 슬레이의 <터키탕>이 있다(작품2-1). 앵그르의 작품을 패러디한 이 작품에서 남자들은 앵그르의 작품에 있는 여자들과는 아주 다른 느낌을 전달한다. 관람자들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얼굴에 압도당한다. 여기서 남자들의 몸은 관람자에게 성적인 육체로 읽혀지지 않는다. 몸보다는 선명한 얼굴이 부각되면서 누드가 남성의 초상화로 강조된다. 다시 말해 여성누드는 몸으로, 남성누드는 개성있는 얼굴과 개인의 인격으로 표상되면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이 여성작가의 작품 속에 재현된 남성 누드는 여성-작가, 남성-대상이라는 역전된 구도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남성의 몸이 성적대상으로 읽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을 전환한 누드작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려준다. 그렇다면 여성누드와 남성누드가 이렇게 다르게 읽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두 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우선 남성지배 문화 속에서 감상자의 시각이 남성들의 시각과 동일시 되는데 있다. 누드모델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꾼다 해도 남성이 여성처럼 읽혀지지 않는 것은 이미 관람자들의 시선이 자신이 속한 사회적 관계에 준거해서 작품을 감상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이미 사회화된 시선으로 읽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여성 누드를 고귀하고 아름다운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남성미술가들의 작품 속에 내재한 성차별주

## 책소개

### 광막한 바다, 사르가소

(지인 리이스 지음, 웅진출판사, 1994)

어설프고 설부른 주장이라고 반박 당할 수 있을 지 모르나 어쨌든 우리 여성들은 많은 순간들에 있어 남성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느껴내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그것은 무서운 단절이고 고립이다. 그곳에서 여성들은 미치광이가 되버린다.

이 소설의 내용을 찾아나가는 방법은 다른 소설이 그러하듯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아마도 앞서와 같이 스스로가 미치광이가 되버린 듯한 경험을 공유하는 여성들이라면 작품 전반에 걸쳐 계속 드러나는 주인공 여성들의 세상에 대한 전체적이고 비분절적인 해석방식과 그녀들의 남성들이 보여주는 남성이라는 분석적인 해석방식의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여성들의 광기를 가볍게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결코 언어나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분석되고 해석될 수 없는 숨겨진 시선들과 웃음들, 동작들, 공기의 흐름들. 여성들의 세상에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기존의 남성적이고 분석적인 세계와 이해를 속에서 결코 사실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여성들의 이해될 수 없는 행동들은 (허위적인 태도로 포장된) 이해나 관용이 아닌 이와 같은 차이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존 작품에서 히스테릭과 미치광이로 설명되어 왔던 여성들에 대해 다른 시선을 요구하는 소설로 읽으면 좋을 듯하다.

(지킴이 김보연 정리)

의를 지적할 수 있다. 르네상스 이래로 예술가는 천재로 여겨졌고 여자는 천재가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여성들은 예술가로서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전통이 미술작품 속에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작가인 남성은 완벽한 인간이나 영웅적인 이미지로 남자를 재현하였고, 여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욕망의 대상으로 그렸다.

여성작가들은 누드라는 재현방식을 단순히 예술적 형식이 아니라 권력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형식으로 받아들인다. 이를테면 나체화에서 남녀의 몸이 재현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남성작가의 작품 속에 내재한 성차별이데올로기를 고발한다. 즉 '재현'을 여성억압에 맞서는 하나의 방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남성누드를 그린 것은 단순히 성역할 전환의 차원이 아니라 재현물에 나타나는 남녀의 권력관계를 드러내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여성작가의 새로운 시도는 현실 속의 남녀 권력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 여성/남성누드에 대한 감상자의 시각이 변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여성누드가 인격적인 의미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여성누드가 젠더를 떠나서 존재하기 어렵고 사회문화적 상황에 준거해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

작품2-2 <터키탕>



# 더운 여름날의 우리들의 연수

문선영 (사법연수원 29기)

사법연수원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에 파견되어 나가면서 우리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설레임과 함께 과연 지난 4달의 짧은 연수로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었다. 더구나 이 기관에 파견된 것이 연수원내의 여성법학회에서 섭외를 하여 자원한 결과였다는 생각에 더욱 책임감이 느껴졌다.

사법연수원에서는 매년 그해 처음으로 연수를 받는 연수생을 상대로 여름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시·구청, 등기소,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사회봉사연수를 하게 하는데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과정을 두고 '봉사' 보다는 '연수' 하는 것이라며 농담을 하곤 한다. 우리 3명의 연수생들의 생활을 돌이켜 볼 때도, 이 기간은 앞으로 법조계에서 평생을 일할 사람으로서 사회의 외진 곳의 목소리를 듣고 올바른 인식을 하게 한 귀중한 시간이었다.

사회봉사연수를 어느 곳으로 가느냐는 동료들의 물음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로 간다는 대답을 할 때마다 무슨 그런데를 가느냐고 놀리는 표정들을 보면서, 인터넷 통계로 세계 3위에 이른다는 성폭력 범죄의 왕국에서 여전히 성범죄를 진정한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피해자의 조신치 못한 행동 탓 정도로만 치부해 버리는 세태를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상담소에서는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상근 선생님들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상담소의 운영과 상담사례 등을 들어, 특히 사법처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셨다.

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성범죄야말로 피해자의 인권이라는 면에 가장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 아버지에게 몇 년간 성폭행을 당하고도 그 아버지를 고소하며 미안해서 우는 피해 소녀에게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불필요한 질문들과 피해자의 성력을 들추면서 보호받을 정조와 보호받지 못할 정조를 운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는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생각을 했다. 특히 사회인들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사법처리를 결심한 피해자들이 직면하는 사법현실이 너무도 남성위주의 세계인지라 또다른 폭력이 내재되어 있음이 안타까웠다.

토요법률상담을 참관한 것도 소중한 경험이었는데, 변호사는 법

적인 조언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법적인 쟁점만 뽑아낸다면 상담을 훨씬 간단히 할 수 있을텐데도 아버지 직업이 무엇인지, 어머니는 몇세이신지, 가족이 모두 같이 사는지 등을 내담자가 올 때마다 시시콜콜히 물으시면서 가해자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알맞는 합의책을 의논하시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피해 후에도 정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의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변호사님의 모습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밖에 내담자들과 직접 상담을 하기 보다는 상담원 선생님들께 간접적으로 법적 쟁점에 관해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었고, 미숙하지만 궁금하신 사법체계의 구조나 여성에 관련된 법적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 위해 강의도 해보면서 우리가 가진 지식을 정리해보았다. 상담원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일반인들이 우리를 전문인이라 믿기 때문에 더욱 신뢰하는 것 같아 나중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게 되든지 작은 시간이라도 내어 직접 일선에서 사람들과 부딪쳐 가며 보고 느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상담소는 언뜻 보기에도 협소한 공간에서 하루종일 많은 일이 진행되어 나가고 있었다. 좁은 공간에서 여기 저기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상근자, 자원봉사자, 내담자들이 왔다 갔다하는데 상근 선생님들은 종일 이렇다할 휴식시간도 없이 바빠 움직이고 계셨다. 좋아서 하는 일은 아무도 못말린다더니 아마도 일에 대한 보람과 열정이 아니었다면 일주일도 못 버텨올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상담소에서 쓰는 도서 카드를 직접 만들기도 하였는데 상근 선생님들이 귀중한 시간을 카드를 오리는데 허비하지 않고 상담소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과 나누어 나간다면 우리들의 세상도 살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부족한 우리를 돌보아 주신 최영애 소장님, 이미경 부소장님, 조종신 선생님, 정진욱 선생님 그리고 같이 계신 다른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사를 드린다. ☺

# 미국사회 성폭력 대책활동의 이모 저모

최영애 (본 상담소 소장)

**미** 국 위스콘신 주립대학 여성연구소 객원 연구원으로 10여 개월 있는 동안(상담소 안식년이었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나는 개인적으로 위스콘신 주에서 활동하는 여러 형태의 성폭력 관련 단체들을 돌아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을 수 있었다.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폭력 문제를 대 여성 폭력의 문제,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고 근 30여년 동안 활발하게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해온 미국사회를 돌아 보면서 나는 참으로 많은 측면에서 감탄했고 또한 신선한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방식은 앞으로 우리사회 성폭력 관련단체들의 활동과 방향 설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위에 미국 위스콘신 주의 대 여성 폭력 대책활동 중 가장 기초적 지원체계의 세 축이라고 보여지는 상담소, 경찰, 병원의 활동을 사안 별로 소개해 보려고 한다.

우선 상담소들의 형태와 활동을 살펴보면, 상담소는 위스콘신 주 전체를 통털어 35개 정도로 각 도시별로 적어도 하나씩 세워져 있고 활동형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함께하는 단체, 성폭력, 가정폭력 중 한 이슈만을 잡아서 하는 단체가 반반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거의 모든 상담소가 24시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있고 주 활동은 상담·교육등 우리와 거의 비슷하지만, 이들 상담소들은 내담자 집단 상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방법론이 상당한 수준에서 개발·실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또한 내담자와 함께 병원에 동행해주는 일과 법정에 동행해주는 일을 주요 과제로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역할은 자원활동가가 아닌 담당근자가 따로 설정되어 이들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기관의 운영비는 주 정부가 75%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후원회, 이사회, 기부마련 행사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기할 만한 사안으로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관들 간의 정보교류, 유대 활동이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연합체를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각 연합체는 각 상담소들의 상담원 훈련자료를 포함, 각 기관에서 다양한 주제로 발간된 각종 지침서와 인쇄, 영상자료들 뿐 아니라 미국 전 지역 기관들의 자료,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소규모의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정보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실무자들을 위한 세미나와 주제별 워크숍을 열어 전체 성폭력 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성폭력 관련 법·제도·내담자 지원 관련 프로젝트 주제와 수행단체를 선정·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사회 중·고등학교에서의 학내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 전체 단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지침서를 배포하고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간동안 메스콤을 활용하여 주 전체단위의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이러한 연합체의 활동은 앞으로 우리사회 전체 성폭력 추방 활동의 질적 성장과 유기적 관계망 형성 등에 매우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내담자 지원체계의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역할과 기능은 우리사회와 견주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내담자 권의 보호와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가 경찰·사법부의 여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협조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사회 대 여성폭력추방운동의 역사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줄기차게 이루어져왔고, 적어도 경찰에 관한 교육은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스콘신 주의 예를 들면, 사건 담당경찰은 일단 피해자가 오면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 조서 작성과 병원동행을 함께 하는 유기적 연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찰 교육은 주 정부차원에서 경찰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담당자가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지침서가 개발되어 비정기적 교육이 단위별로 실시되고 있다. 그 내용도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의 조서를 꾸밀 경우를 위한 지침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있다.

피해자 지원체계의 또 하나의 주요한 축을 이루는 병원의 협조체계 역시 위스콘신 주의 경우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전 진행과정을 책임지는 하나의 특기할 만한 시스템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 각 지역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선정되고 이 병원 응급실내에 지정 간호사가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수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증거물 확보부터 법정 증언까지 책임지고 있다. 간호사가 "from beginning to end"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 연유는 응급실의 상황과 조건이 의사 중심의 피해자 지원체계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즉 생명의 위기에 처한 환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여성 폭력피해자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 의사들의 법정 진행으로 인한 전체 업무의 차질 등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고안, 실시되었고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사회에서의 다양한 성폭력운동에 대한 정보는 앞으로 우리사회 성폭력 단체들의 활동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믿으며 소개의 글을 맺는다. ☺

# 2250년의 여고괴담

장윤경 (본 상담소 사무국장)

“애들아, 그 얘기 들었니?”

“응? 무슨 얘기?”

호기심네 반에서 수다장이로 소문난, 아니 전교 수다장이로 소문난 입도 크고 목소리도 큰 와글이의 질문에 모든 아이들이 집중했다.

“그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말이야.”

요사이 호기심네 반 뿐만 아니라 호기심네 학교 그리고 전국의 모든 여학교에서는 그 무섭고 소름끼치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어른들이 걱정할 정도로 아이들은 그 이야기에 과도한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야, 선생님 오신다...” 선생님의 등장으로 쉬지않고 움직이던 와글이의 큰 입은 잠시 멈추게 되었다.

수업은 시작되었지만 호기심은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호기심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여행]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반 아이들도 호기심과 마찬가지로 옆자리의 팔뚝꿍어도 둔순이와 소곤거리고 있었다.

“야, 둔순아, 근데 20세기 타임캡슐에서 나온 것 중에서 제일 끔찍한 게 뭘줄 아니?”

“뭘? 난 잘몰라”

“있잖아, 비디오테이 이래. 20세기 사람들이 주로 보던 영화와 또 우리같은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던 비디오도 있구.”

“그게 뭐 어때서? 그 시대에도 영화를 봤구나. 교육도 하고, 우리와 똑같네.”

“야, 둔순이 너 정말...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영화 내용 중에 성은 크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고, 부끄러운거라고 한대.”

“뭘라고? 글을 배우지 않으면 읽고 쓸 수 없는 것처럼 성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 아니그럼, 팔뚝꿍어! 20세기 사람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알았나봐. 우리보다 더 문명인이었나봐. 그치?!”

“너 둔순이...”

호기심은 타임캡슐에 골몰하며 시간여행 실기실로 갔다. 이 시간은 특기교육시간으로 시간여행 조중사를 꿈꾸는 친구들만 오는 만큼 그 비디오에 대해 더 열띤 생각들이 오고갈 것이다. 호기심의

예상대로 실기시간에 언제나 지각하는 느낌이조차 벌써와서 열을 올리고 있었다.

“느림아, 그게 정말이야? 안 가르친다고?”

“그렇대.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성교육을 안했대. 그리고 교장 학교에서 한번 정도의 성교육이 있었을 뿐이래. 그것도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아기가 탄생됩니다. 아기를 원하지 않으면 피임을 하면 됩니다.’ 이 정도였대.”

“으악, 믿을 수 없어!”

“그래, 소심아, 믿고 싶지 않겠지. 우리의 조상이 원시인이었다고 누가 믿고 싶겠어. 그러나 믿을 수 밖에 없지 않니? 타임캡슐에서 나온 역사적 사실이니까.”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성교육을 받았잖아. 학교에서도 집에서 나이에 따라 다양한 교재를 활용해서. 만약 내가 성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근데 더 끔찍한 것은 성과 관련된 범죄도 있었대. 그걸 성폭력이라고 했대.”

“느림아! 성폭력이 아니라 성폭력이라고 하던데.”

“맞아 맞아, 성폭력. 그건 상대방의 의사도 묻지 않고 성에 대해 기분 나쁘게 얘기하거나, 상대방을 만지거나 심지어는 성관계를 하는거래. 아니 성관계가 아니라 성폭력이라고 했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해. 우린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기분 나쁜 얘기는 하지도 않잖아. 그만큼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데.”

“더 섬뜩한건, 성폭력이 어디에서나 일어났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직장에서도, 집에서, 학교에서도 또...”

“정말...?”

친구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섬뜩하고 소름끼치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호기심은 2250년을 살고 있는 자신은 정말 복받았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정말 성교육도 하지 않는 20세기에 살았었다면... 남자친구를 사귀더라도 서로 믿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을까? 또 성폭력인가 성폭력인가 하는 범죄가 있는 으시시한 세상에서 맨정신으로 살 수 있었을까...?” 호기심은 수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시간여행 비행정에 올라탔다. ☺

**열린터에 물품을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윤상, 손혜미, 이소연, 임순영, 정유석

**상담소의 밤을 지켜줄 새 식구 9기 지킴이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곽시훈, 권현정, 김경선, 김동령, 김병은, 김보경, 김보연, 김세원, 김영숙, 김은정, 김정란, 김정수, 김향수, 김현정, 김혜영, 민지영, 박동순, 박은정, 박정연, 박진영, 박혜선, 박희숙, 백영희, 손혜미, 송진희, 여경화, 유선영, 유수아, 유현정, 윤명주, 이규진, 이소연, 이원희, 이윤경, 이윤선, 이은정, 이정화, 이정효, 이주현, 이희경, 정소영, 정유진, 정지영, 한연희, 허은하, 현소혜

**새로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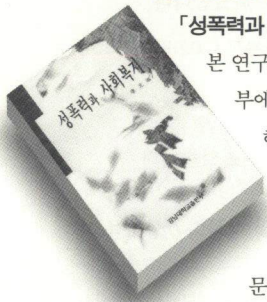
박미숙, 오희옥, 이해영

**제11기 성폭력상담원 교육생과 제10기 지킴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주간)성폭력상담원 교육은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주간 매일 진행되며, 지킴이 교육은 10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7시)과 토요일 오후(3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상담소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으로 자원활동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문의 : (주간)조중신 부장/(지킴이)정유석 부장 (T.576-7128)

**새로 발간된 책을 소개합니다**



**「성폭력과 사회복지」**

본 연구소 이원숙 소장이 <성폭력과 사회복지>를 펴냈다. 이 책은 아동성학대와 성폭력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전반부에서는 아동성학대의 역사적 배경, 근친성학대가족의 역동성, 학령전 피해아동에 대한 면접방법 그리고 남녀 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개입프로그램이 이론적으로 고찰되고 있으며, 후반부에는 성폭력의 역사,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위기개입 및 성폭력생존자에 대한 개입방법이 다루어져 있다. 나아가서 성폭력상담소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체계 및 예방대책이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은 성폭력상담원을 비롯하여 여성학 분야, 사회복지 분야 그리고 심리학 분야에서 성폭력에 관심을 가진 학도들에게 전문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원숙 지음/강남대학교출판부/383면/9,000원)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몇가지 것들 : 예방과 대처」**



본 상담소 부설 연구소에서는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몇가지 것들 : 예방과 대처>를 8월에 펴냈다.

본 소책자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누구나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몇가지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성폭력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하는지를 출발로 성폭력 발생의 원인, 잘못된 통념, 여러 유형의 실태 및 대처 등을 이야기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가 겪을 심리적 과정을 짚으면서 피해자 주변에서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도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작지만 알찬 내용의 책자이다

(2,000원)

● 구입문의 : 윤이경미 책임연구원(T.576-5450)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상처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상담소에서는 이를 소중히 받아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본 상담소의 소식지 <나눔터>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상담소의 각종 행사에도 초대됩니다. 지금 전화하여 월단위, 혹은 연단위로 후원금을 약정하여 주십시오.

● 문의 : 박미숙 부장(T.576-7128)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곳입니다

1991년 4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 이래 본 상담소는 지금까지 1만 9천여 회의 성폭력 피해자들과의 법적·의료적·심리적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였으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예방비디오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 몇 가지 유형을 통해 성희롱이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알려줍니다.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 예비 직장인, 남녀 직장인들에게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 내 몸은 내가 지켜요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 아직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인형극과 노래극을 통해 '내 몸은 소중한 것이며, 내가 아끼고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어린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그리고 어린이를 둔 부모님의 성교육 교재로 적합합니다.

###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

건강한 성규범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끄는 성교육이 부재한 환경 속에서 온갖 일탈적인 성문화에 대책없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작된 청소년 성폭력 예방 비디오.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이트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과 남성 사이의 왜곡된 의사소통이 성폭력이라는 무서운 상황까지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깨닫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토론자료가 담긴 팜플렛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 구입문의 : 박미숙 부장 / (02)576-7128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외부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외부 강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 강의 주제

성폭력 실태와 예방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 어린이 성폭력 / 직장 내 성희롱 /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성문화 / 성교육 지도자 교육 / 자녀 성교육 지도 / 유형별 성폭력 상담방법

※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본 상담소에서는 강의와 더불어 상담소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비디오를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의의뢰 문의 : 장윤경 사무국장 / (02)576-7128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권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 일반상담, 열린터 : (02)529-4271~2, 위기상담 : (02)573-1888



본 상담소 심벌은 여성을 나타내는 우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의 비스듬한 다리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벌의 색깔은 '여성'과 '자매'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이사 강학중·문해란·민병진·박금자·오세민·윤정순·이종걸·조영환·최영애 ●감사 회계사/배자하 세무사/차재능 ●자문위원 상담 인건재활화/김종인 정신보 건사회사업가/오현숙 목회상담가/이재훈 임상심리상담가/이철원·정연옥 심리학/이윤로·이장호·이혜성·장연집·채규만 사회학/장영복 사회복지학/한인영·현혜순 법률 검사/김옥철 법학/한인섭 변호사/강기원·고순애·권성희·김삼화·박성호·박찬운·신기남·이명숙·이백수·이상경·이유정·이종걸·이향아·임종인·장재호·장철우·장갑생·정성광·정연순·조영환·최은순 경찰/김강자 의료 가정의학/김종구 법의학/강신몽·권일훈·문국진·서중성·이경룡·이운성·최영식 산부인과/김주필·김현식·김홍배·문영규·민용기·박경자·박금자·박양실·박종민·윤경·이길여·이옥주·임용택·정경원 심형외과/정영덕 소아정신과/소은희·최보문 신경정신과/김광일·김동순·김병후·김정일·남정현·양창순·이나미·이수경·최진숙 외과/오세민 임상병리과/강정옥·문해란 PC상담가 통신/김형준 여론조사/이상경 홍보 출판 신문방송학/김용숙·최선열 언론인/전여옥 여성학/박해란·오숙희 연극/김지숙·손숙 출판/강학중·이인자 PD/교학찬 조소/홍성도 재정/의사/민병진 회계사/배자하 임종은 세무사/차재능 대한적십자사 자문위원/윤정순 교육 교사/김성애·이순열 교육학/김인수·정유성 사회복지학/신필균 청소년교육/이규미 문화인류학/정병호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소장 이원숙 사회학/김준호·심영희·조형 여성학/김은실·변혜정·이재경·장필화·조주현·허라금 인류학/정병호 철학/이상화·정대현 심리상담가/권진숙 아동복지학/장화정 통계학/이용재 영문학/강경화 청소년연구원/김옥순 법학/김선옥·신용자 사회심리학/김혜원 사회학/박진숙 영화평론가/변재란 ●대표이사 박금자 ●소장 최영애